

기수가



[해제]

<기수가>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지어진 작품으로 화전가류에 속하는 규방가사이다. 연작으로 이루어진 <기수가> 작품들은 대부분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주고받은 논쟁을 주로 담고 있으며, 동일 계열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회조가>, <답기수가>, <반기수가>, <자소가> 등이 있다. <기수가>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간 시누이가 귀녕(歸寧)와서 놀이하던 장소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올케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시누이들은 지금 올케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자신들의 친정인 어진 시댁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자신들을 대접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미한 집안에서 훌륭한 집안으로 시집와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자신들을 포함한 시댁식구를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며 올케들을 훈계하고 있다. 또한 시누이들이 올케의 가문을 무시하면서 그들의 가문을 과시하는 면도 드러난다. 그러나 본 작품은 <기수가>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작품의 내용상 <답기수가>로 보인다. 작품의 첫 부분에 “제중 식매들아 이 내 말삼 들어보소”의 구절로부터 시작되며 작품 중간에 자신이 한훤선생(김광필)의 후예라고 하는 점에서 시누이들이 지은 <기수가>에 대한 답가로 올케가 지은 것으로 보인다. <기수가>에서 시매(媿妹)들에 의해 조롱을 당했던 올케는 그에 대한 반론과 귀녕(歸寧) 온 시매(媿妹)들에 대한 훈계를 노래로 풀어놓는다. 먼저 화자는 자신의 집안이 교남(嶠南)의 명족(名族)이요 국내(國內)의 대반(大班)이라며 시댁 못지않게 대단한 가문임을 밝힌다. 그리고는 시누이들의 부덕함을 비난하였으며, 어른 공경과 자손 훈계, 치산과 방적, 법도에 맞는 행동거지 등에 대해 논하였다. 올케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시누이로서의 책무에 힘쓰라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교남의 명족인 자신의 집에 비해 보잘것없는 시누이들의 가문을 비웃었다. 대부분 경제적인 부를 기반으로 하거나, 한미한 벼슬, 몰락한 처지에 있어 보잘 것 없는 양반이라며 <기수가>에서 시누이들이 자신을 무시한 것과 똑같이 조롱하고 있다.

[원문]

초야조친 물싱각흐 미친원기슈는 친정나라의 인느싸지라
 그런고로 친정걸즈은 환원기수지형이라 혼고친정싱각은
 친원기수집과 흐느잇가 울커싸갈 땀지시와 친인지성
 존아논다 뒤왈 즐라라분왕후 비친히착쿨꺾여의복을
 링가라 식갈담시는 만고부여법 바돌빅요 남죽제후을
 손조빈치을 키야제 스올 바슴라식치빈시는
 세송중부의 쏜바돌빅아거오 잇가울커싸

기수가

건곤이 조판하고 이상이 가렸는듯
 사람이 삼겨느서 이선농일 여뿐이로다
 우리는 엇지타가 부모형제 멀이하고
 남우가문 초조드러 금중골물 지니니니
 너런천지 웅식흐다 분분흐다 이세상의
 예도이스 데도이스 우리는 데중숙질
 기수싱각 간절흐야 침면초로 도라드니
 아시에 보던 다시보이 반가우나 고인을 싱각흐니

일번은 조부도다 면멋치 모화던고
 칠종형데 양숙딜이 십여년간후 만나보니
 신기코도 반갑도다 허물며 우리ᄃᆞᆫ
 조손흥성 장후도다 아적적역 모와드니
 한방일쇠 예약책 보난소리 구시고도
 지미잇니 손벽치고 각각심회 춘설갓다
 이니말숨 드러보소 너희는 농조로서
 부모임니 덕획으로 육계지물 모화두고
 춘하추동 샴시절의 임니되로 논것만논
 절통하다 우리들은 치마두른 타시로서
 사방팔 헛터저서 니ᄃᆞᆫ인이 달랄소야
 우리못기 쉽존하니 한변회초 공논허식
 육계지물 풍족하니 요용헌되 어되더논
 다시본다 어서하고 식연마다 써러되니
 진소가 몇장이며 급제그 직조런고
 조로ᄃᆞᆫ 돌을엿코 정중여가 잡게허며
 식뎡방의 술을먹제 친구만타 자랑터니
 좁인역시 친구던가 그치씨든 그지물을
 우리들 못먹을가 이말저말 허여가며
 어른전의 취품하니 당연한 우리말을
 종남인들 저레할초 분부한번 뵈온후의
 취회지물 더러니니 청들은 이ᄃᆞᆫ양이요
 퍽미는 십오두라 마음의 약소허는
 부들사람 ᄃᆞᆫ이라 그되로하니 공존지전
 극논허ᄃᆞᆫ
 전고기 조컨만논 장만허기 폐되이오
 가진편 잇것만논 유청이 극귀하니
 각식뎡 더저두고 탁주모영 무방허드
 첫즙의 양간회논 혼조술이 붓침이요
 밥의논 육기당이 데일이라
 베투지 전미탕은 오후참이 단단허드
 여보소 종놈들아 이런노리 쉽존하니
 사양말고 간검하소 저종놈들 거동보소
 벌씩갓치 니다르셔 두눈을 불룻쓰고
 이말한번 더허더라 염썩업논 스람들아
 되당부 농조로서 너희압히 진디 달궤흘가
 취회놀을 당하거든 우리여러 동반들이
 종획이 모혀ᄃᆞᆫ 조형장이게 분부허면

뉘영이라 거역허리 너히들 손시되로
 연하고 만능고기 가초가초 당만허여
 어른전의 올인후의 우리거기 진지하라
 너이들 그러홀제 우리입 온전홀가
 아라엿다 솟감주가 너주나니 닉늑먹제
 심쑤고도 가소롭다 너이업서 못놀소야
 피초이리 ㄷㄹㅎ 하나 늑미간의 흠이업넉
 잇씩가 어논씩요 정오연 섯다리라
 동원의 봄이드니 저식소리 반갑도다
 미화솿 버들가지 춘당이 링동하넉
 상원보히는 달에 망월허는 소연들아
 계수가지 썩글소야 아달아기 안아나볼가
 우리난 엇지허야 여심싱비 하다말가
 못고지가 닷쳐시니 썩지어라 어셔가즈
 노기홍상 느러셔니 화양동이 빗치나고
 살낭살낭 건난모양 치마소리 바람난다
 어딴로 가쫓고 영스지 늑흔집의
 방마로 통장하고 ㅁ기가 ㅁ활허다
 기아스니 쥬종이요 두무스니 쥬조되여
 계승스니 ㅁㅁㅁㅁ ㅁ일홍 무궁화논
 차우의 ㅁㅁㅁㅁ ㅁ오동 ㅁ가죽은
 전전허고 삼삼하다 우리도 남조연들
 글귀나 지여볼걸 ㅁ상의 현판글시
 여조보기 단청이다 시비불너 실씩허니
 누귀누귀 모핻던고 손홀곱파 혀여보조
 첫좌상 다섯분은 승ㅁㅁ 와겨싯다
 동거니가 근본이요 곤윤손 웃듬이라
 연한고기 고빅허여 현슈초로 드린후의
 짜님네가 쥬당이라 마니먹소 허당답아
 거문머리 헛득헛득 싯치가 안일넉가
 단동집 부순집아 타파허고 슬허마소
 오날은 난득이라 화기로 위ㅁㅁ허니
 셋중의 단말허면 기며느리 링세르라
 싯평딤 계평딤은 다 갓탄 형제로서
 조여조랑 너무 마오 일번은 부럼도다
 다산골물 학동집은 절문 노인 우읍도다
 첫근친 싯안집은 싯씩자랑 광명일쇠
 녁실념실 오스집은 타도소리 고이허드

돌방돌방 신곡집은 우리 종이 ㅁㅁㅁ시
 이답도다 이뭇고지 불침종반 몇몇친고
 연조오심 유촌집은 손여사랑 바졌던가
 절통하다 지동집은 이노림의 업단말가
 이달을사 바회집은 ㅁㅁ기리 그리먼가
 알들하다 구라집은 치순하기 골물일쇠
 굿부ㅁㅁ집아 직상하기 불형하다
 우읍다 병목집은 온다소리 몇변인고
 우리말삼 더저두고 드러오ㅁㅁ 스람이라
 헤여보고 ㅁㅁ석주식 강누ㅁㅁ 노라ㅁㅁ아
 하ㅁㅁㅁㅁ 슬허마소 법순ㅁㅁ 히평ㅁㅁ은
 명ㅁㅁ양반 안일년가 관동ㅁㅁ 법산ㅁㅁ은
 한산양반 발명마소 오촌ㅁㅁ 상디ㅁㅁ은
 아달자랑 너모 마소 둥둥ㅁㅁ ㅁㅁ아ㅁㅁ은
 세간샤리 알들훈의 샤촌ㅁㅁ 각소ㅁㅁ은
 음전양전 교ㅁㅁ마소 마천ㅁㅁ 김산ㅁㅁ은
 동실동실 구술갓닉 디동ㅁㅁ 지동ㅁㅁ은
 일가랏고 직세ㅁㅁ소 도진ㅁㅁ 순ㅁㅁ은
 동향동서 직별하니 올막졸막 여러아히
 동조ㅁㅁ취 방불하니 이리저리 헤여보니
 ㅁㅁ여명이 거니로ㅁㅁ 진유조을 분을ㅁㅁㅁ
 분육ㅁㅁㅁ 흐여서라 위씨원 화수흰들
 여기서 더흠손야 도련명 울니촌이
 친척정화 이안인가 이ㅁㅁㅁ 도리원의
 철육놈스 꺾엿도다 일포ㅁㅁ도 유수하니
 허마리 아니로득 양간회 기중국의
 ㅁㅁ가죽이 터저논다 이럿타시 먹어시니
 아니놀고 무엇하니 웃갓치 노련니와
 척스판을 다령한다 아스라 다바리고
 만단설화 ㅁㅁㅁㅁ보시 가소롭다 우리 인칭
 ㅁㅁ연니 얼마련고 풀입ㅁㅁ 이스리요
 물우의 것품이ㅁㅁ 흐물며 이세송의
 아니놀고 무엇하니 우읍도득 다ㅁㅁㅁㅁㅁㅁ
 세상사람 직물만 중케알고 저먹일줄 모라논고
 여보소 아온님닉 우리말삼 들어보소
 조닌들 제종동서 어진시ㅁㅁ 만늬와서
 부모님게 효도하고 가당들게 공경하여
 금동육여 버러이서 오복이 구비하니

다횡코도 유관하느 이딴 들어손으온지
 이십연니 너머가되 관목탕 묘포회나
 흥변노림 하엿던가 우리는 오덧말덧
 억딧우 쯤 쯤퍼노코 일촌을 다뭏치고
 딧언을 비설비설 체면조로 청히더니
 염치업는 이분인들 무썩썩줄 모라고서
 우질기고 짜라오니 비위도 조흠시라
 퍅연니느 스오리라 이말슴 노나말고
 즈니들도 공논하야 우리를 가꺠잔니
 흥변누림 비설하고 양반시식 딧접하소
 수괴수괴 하느모양 우리보기 가관이로쇠
 좌상의 노인분닉 흥말이 드리시딧
 여즈뭉이 되야느서 망통하야 슬딧잇느
 농활양 잇것만 쯤 여활 불과하드
 좌중의 흥엽흔니 달으셔 하느말이
 오느이라 닌썩딧로 노라볼가 하엿더니
 이말슴이 연꺠고 우리는 일얼망장
 세송송이 뇧드가서 여즈즉분 하엿거던
 야속하드 어른말슴 곳뵈딧 풀이로식
 이말저말 다더저두고 놀기만 하여보식
 불송하드 여즈뭉이 친가를 하직하고
 동서농북 같은후의 스싱존망 아단말가
 퍅연삼만 육천일의 오느이 몇놀일고
 우음으로 소일하식 음병똥똥 순식간의
 서양이 비겨서라 여흥이 미진하여
 파차롤 하든말가 중의 하당딧이
 한말을 하여시되 이노림 쉽존하니
 괴록이나 하여두식 녹엽갓치 훗터지면
 다시오괴 어려워라 이가스 닌여보면
 좌중의 면목 역역하리 아모려느 제똥들으
 다시뭏고 기약하식

[현대역]

기수가

건곤(乾坤)1이 조판(肇判)2하고 이상이 가렸는데
 사람이 생겨나서 이선남 일여뿐이로다
 우리는 어찌하다가 부모형제(父母兄弟)를 멀리하고
 남의 가문(家門) 찾아들어 금중골몰 지내나니
 너른 천지 웅색(壅塞)하다 분분(紛紛)하다3 이 세상에
 예도(禮度)있어 제도(制度)있어 우리는 제종(諸宗)4 속질(叔姪)5
 기수 생각 간절하여 생면차로 돌아드니
 이전에 보든 다시 보니 반가우나 고인(古人)을 생각하니
 첫 번째는 조부(祖父)로다 몇몇이 모여있던고
 칠종형제(七從兄弟)6 양숙질(兩叔姪)이 십여 년간 후에 만나보니
 신기하고도 반감도다 하물며 우리들은
 자손흥성(子孫興盛) 장하도다 아적(蛾賊)7 적역 모여드니
 한방일세 예악(禮樂)8책 보는 소리 구시고도
 재미있으니 손뼉치고 각각심회(各各心懷) 춘설(春雪)같다
 이내말씀 들어보소 너희는 남자(男子)로서
 부모님의 덕택으로 육계재물(肉界財物) 모아두고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에 임의대로 놀기만 했건만은
 절통(切痛)하다9 우리들은 치마 두른 탓으로서
 사방팔방(四方八方) 흩어져서 (해석 불가) 다름 소냐
 우리 모이기 쉽지 않으니 한 번 회차10 공론(公論)11하세
 육계재물(肉界財物) 풍족(豐足)하니 요용(要用)12한 곳 어디던가
 다시 본다 어서하고 식년(式年)13마다 떨어지니
 진소(陳疏)14가 몇 장이며 급제 그 재자(才子)런고
 (해석 불가) 돌을 넣고 정중여가 잡게 하며
 색주방(色酒房)15에서 술을 먹을 때 친구 많다 자랑하더니
 잡인(雜人) 역시 친구던가 그 때 쓰던 그 재물을
 우리들 못 먹을까 이말 저말 하여가며
 어른 전(前)에 취품(就稟)16하니 당연한 우리 말을
 종남(從男)인들 저레할 차 분부 한 번 뵈온 후에
 취해서 재물을 덜어내니 청들은 (해석 불가)
 백미(白米)는 십오두(十五斗)라 마음의 약소하나
 부들사람 (해석 불가) 그대로 하니 공잔지전
 극난(極難)하다
 전과 고기 좋건만은 장만하기 폐단이오
 갖은 편17 있건만은 유청(乳淸)18이 극귀(極貴)하니19

각색주(各色酒)20 던져두고 탁주(濁酒)21 모영 무방하다
 첫잔에 양간회(胖肝膾)22는 한 잔 술에 붙임이요
 밥에는 육개장(肉-醬)23이 제일이라
 벼두지 전미탕은 오후참이 단단하다
 여보소 종남(從男)들아 이런 놀이 쉽지 않으니
 사양 말고 간검하소 저 종남(從男)들 거동보소
 벌떼같이 내달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말 한번 더하더라 영통24없는 사람들아
 대장부(大丈夫) 남자(男子)로서 너희 앞에 험한 곳 달라할까
 취한 날을 당하거든 우리 여러 종반들이
 종택(宗宅)에 모여 자행장에게 분부하면
 누구의 영이라 거역하리 너희들 숨씨대로
 연하고 맛난 고기 갖춰 갖춰 장만하여
 어른 앞에 올린 후에 우리 고기 진지하라
 너희들 그러할 제 우리 입 온전할까
 아라 였다 곳감 줄까 너 주느니 내나 먹지
 슬프고도 가소롭다 너희 없어 못놀소나
 피차 이리 조롱하나 납매간에 흠이 없네
 이때가 어느 때요 정오년 설달이라
 동원에 봄이 드니 저 새소리 반갑도다
 매화꽃 버들가지 춘장(春裝)25이 맹동(萌動)26하네
 상원(上元)27 보이는 달에 망월(望月)28하는 소년들아
 계수(桂樹)가지 꺾을 소냐 아들이기 안아나볼까
 우리는 어찌하여 여심생비 한단 말인가
 모꼬지29가 닳쳤으니 짝지어라 어서가자
 녹의홍상(綠衣紅裳)30 늘어서니 화양동이 빛이 나고
 살랑살랑 걷는 모양 치마꼬리 바람난다
 어디로 가잔 말이고 영사재 높은 집에
 방마로 통장하고 (해석 불가)
 개아산이 주종이요 두무산이 주조되어
 계승산이 (해석 불가) 백일홍(百日紅) 무궁화(無窮花)는
 차우에 (해석 불가) 벽오동(碧梧桐) 뱃가죽은
 전전하고 삼삼하다 우리도 남자였다면
 글귀나 지어볼걸 벽상(壁上)에 현판(懸板) 글씨
 여자보기 단청(丹青)31이다 시비(侍婢)32 불러 실석하니
 누구누구 모았던고 손을 꼽아 헤아려보자
 첫 좌상(座上)33 다섯 분은 (해석 불가) 와 계신다
 둥거니가 근본이요 곤륜산(崑崙山)34 으뜸이라

연한 고기 고배(高排)35하여 헌수차(獻酬次)36 드린 후에
 따님네가 주당(酒黨)37이라 많이 먹소 하당집아
 검은 머리 희끗희끗 새치가 아닐런가
 단동집 부산집아 타파하고 슬퍼마소
 오늘은 난득(難得)이라 화기로 (해석 불가)
 셋 중에 잔말하면 개며느리 며느리 맹세하라
 신평집 계평집은 다 같은 형제로서
 자녀자랑 너무 마오 일변(一邊)38은 부럽도다
 다산골물 학동집은 젊은 노인 우습도다
 첫 근친(親親)39 신안집은 시덕자랑 광명일세
 넘실넘실 오산집은 타도소리에 괴이하다
 돌방돌방 신곡집은 우리 중이 (해석 불가)
 애달프도다 이 모꼬지 불침중반 몇몇인고
 연자오심 유촌집은 손녀 사랑 빠졌던가
 절통(切痛)하다 지동집은 이 놀음에 없단 말인가
 애들을사 바회집은 (해석 불가) 길이 그리 먼가
 알뜰하다 구라집은 치산(治産)40하기 골몰(汨沒)일세
 굿부백산집아 재상하기 불행하다
 우습다 병목집은 온다 소리 몇 번인고
 우리 말씀 던져두고 들어오는 사람이라
 헤아려보고 좌석주세 강누덕 노라덕아
 (해석 불가) 슬퍼마소 법산덕 해평덕은
 명태양반 아닐런가 관동덕 법산덕은
 한산양반 발명마소 오촌덕 상지덕은
 아들자랑 너무 마소 중동덕 대아덕은
 세간살이 알뜰하네 사촌덕 각고덕은
 음전41암전 교태(嬌態)마소 마천덕 김산덕은
 동실동실 구살갈네 디동덕 지동덕은
 일가(一家)라고 재세42마소 도진덕 산덕은
 동향동서 재벌하니 올망졸망 여러 아이
 동자(童子) 붓채 방불(彷彿)43하나 이리저리 헤아려보니
 백여명(百餘名)이 (해석 불가)
 분육(分肉)44 (해석 불가) 하였어라 위씨원 화수흰들
 여기서 더할 소냐 도연명(陶淵明)45 율리촌(栗里村)이
 친척정화 이 아닌가 이태백(李太白)46 도리원(桃李園)에
 철육남사 피었도다 일포식(飽食)도 우수하니
 허말이 아니로다 양간회 개장국에
 뱃가죽이 터져난다 이렇듯이 먹었으니

아니놀고 무엇하리 옷같이 놀려니와
 척사판(擲柶板)47을 대령한다 아서라 다 버리고
 만단설화(萬端說話)48 (해석 불가) 보세 가소롭다 우리 인생
 백년이 얼마런고 풀잎에 이슬이요
 물 위에 거품이라 하물며 이 세상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우습도다 (해석 불가)
 세상사람 재물만 중하게 알고 저 먹일 줄 모르는고
 여보시오 아우님네 우리 말씀 들어보소
 자네들 제종(諸宗)49 동서(同塙) 어진 시덕 만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장들께 공경하여
 금동육여 벌려있어 벌려있어 오복(同塙)이 구비되니
 다행하고도 유관(有關)하나 이 집안 들어와 살게 된지
 이십년이 넘어가되 관목탕 조포회나
 한번 놀이 하였던가 우리는 오는 듯 마는 듯
 (해석 불가) 잡혀놓고 일촌(一村)을 다 못치고
 대언(代言)50을 배설배설 체면조로 청하더니
 영치없는 이 분인들 (해석 불가) 모르고서
 우질기고 따라오니 비위도 좋을시라
 백년이나 살으리라 이 말씀 노나말고
 자네들도 공론하여 우리를 (해석 불가)
 한번 놀이 배설하고 양반시세 대접하소
 수괴수괴 하는 모양 우리 보기 가관이로세
 좌상에 노인분네 한 말이 다르시되
 여자몸이 되어나서 망통(望筒)하여 쓸데있나
 남자한량(男子寒涼) 있건만은 여자한량(女子寒涼) 불가하다
 좌중에 한 여편네 달려와서 하는 말이
 오늘이라 내 뜻대로 놀아볼까 하였더니
 이 말씀이 (해석 불가) 우리는 이럴망정
 세상이 나왔다가서 여자 직분 하였거든
 야속하다 어른 말씀 꽃밭에 풀이로세
 이말저말 다 던져두고 놀기만 하여보세
 불쌍하다 여자 몸이 친가(親家)를 하직(下直)하고
 동서남북(東西南北) 갈린 후에 사생존망(死生存亡) 안단 말인가
 백년인 삼만 육천일에 오늘이 몇 날일꼬
 웃음으로 소일하세 음병동병 순식간에
 석양이 비겼어라 여흥이 미진(未盡)하여
 파차를 한단 말인가 그 중에 하당덕이
 한 말을 하였으되 이 놀이 쉽다고 하니

기수가

기록(記錄)이나 하여두세 낙엽같이 흩어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이 가사 내어보면
좌중(座中)에 면목(面目) 역력하리 아무려무나 제종들아
다시 모이기 기약(期約)하세

[각주]

- 1) 건곤(乾坤) : 천지(天地) 혹은 음양(陰陽).
- 2) 조판(肇判) : 처음 쪼개어 갈라짐.
- 3) 분분(紛紛)하다 :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다.
- 4) 제종(諸宗) : 한 거래붙이의 본종(本宗)과 지파(支派)를 통틀어 이르는 말.
- 5) 숙질(叔姪) : 아저씨와 조카.
- 6) 칠종형제(七從兄弟) : 일곱의 사촌형제.
- 7) 아적(蛾賊) :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효.
- 8) 예악(禮樂) : 예법과 음악.
- 9) 절통(切痛)하다 :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하다.
- 10) 회차 : 모꼬지.
- 11) 공론(公論) : 여럿이 의논함.
- 12) 요용(要用) : 간요하게 씬.
- 13) 식년(式年) :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옴.
- 14) 진소(陳疏) : 상소(上疏).
- 15) 색주방(色酒房) : 색주가(色酒家)
- 16) 취품(就稟) : 웃어른께 나아가 여쭙.
- 17) 편 : ‘떡’을 점잖게 이르는 말.
- 18) 유청(乳淸) : 젖을 가만히 놓아두었을 때 위에 고이는 노르스름한 물.젖당의 원료로 씬.
- 19) 극귀(極貴)하니 : 몹시 귀하니.
- 20) 각색주(各色酒) : 갖가지 빛깔의 술.
- 21) 탁주(濁酒) : 막걸리.
- 22) 양간회(胖肝膾) : 소의 양과 간을 날로 잘게 썬 음식.
- 23) 육개장(肉-醬) : 쇠고기를 삶아서 뜯어 넣고, 얼큰하게 갖은 양념을 해 끓인 국.
- 24) 염통 : 심장(心臟).
- 25) 춘장(春裝) : 봄철의 단장.
- 26) 맹동(萌動) : 싹이 남.
- 27) 상원(上元) : 대보름날.
- 28) 망월(望月) : 달을 바라봄.
- 29) 모꼬지 :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 30) 녹의홍상(綠衣紅裳) :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을 가리킴.
- 31) 단청(丹青) : 옛날식 집의 벽, 기둥, 천장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림.
- 32) 시비(侍婢) : 시종드는 계집종.
- 33) 좌상(座上) :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 34) 곤륜산(崑崙山) : 중국 전설상의 높은 산.중국의 서쪽에 있으며 옥이 난다고 함.서왕모가 살았던 곳이라고도 함.

- 35) 고배(高排) : 그릇에 높이 괴어 담음.
- 36) 헌수차(獻酬次) : 잔을 올리기 위해.
- 37) 주당(酒黨) : 술을 즐기고 잘 마시는 위.
- 38) 일변(一邊) : 어느 한편.
- 39) 근친(覲親) :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뵈.
- 40) 치산(治産) :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는 것.
- 41) 음전 :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함.양전함.
- 42) 재세 : 힘이나 세력을 믿고 교만하게 굽.
- 43) 방불(彷彿) : 흐릿하거나 어렵듯함.혹은 거의 비슷함.
- 44) 분육(分肉) : 짐승의 고기를 나눔.
- 45) 도연명(陶淵明) : 중국 동진의 시인으로 <귀거래사>라는 작품을 남김.당나라 이후 육조(六朝)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림.
- 46) 이태백(李太白) :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
- 47) 척사판(擲枱板) : 윷놀이 판.
- 48) 만단설화(萬端說話) : 온갖 이야기.
- 49) 제종(諸宗) : 한 거래붙이의 본종(本宗)과 지파(支派)를 통틀어 이르는 말.
- 50) 대언(代言) : 남을 대신하여 말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